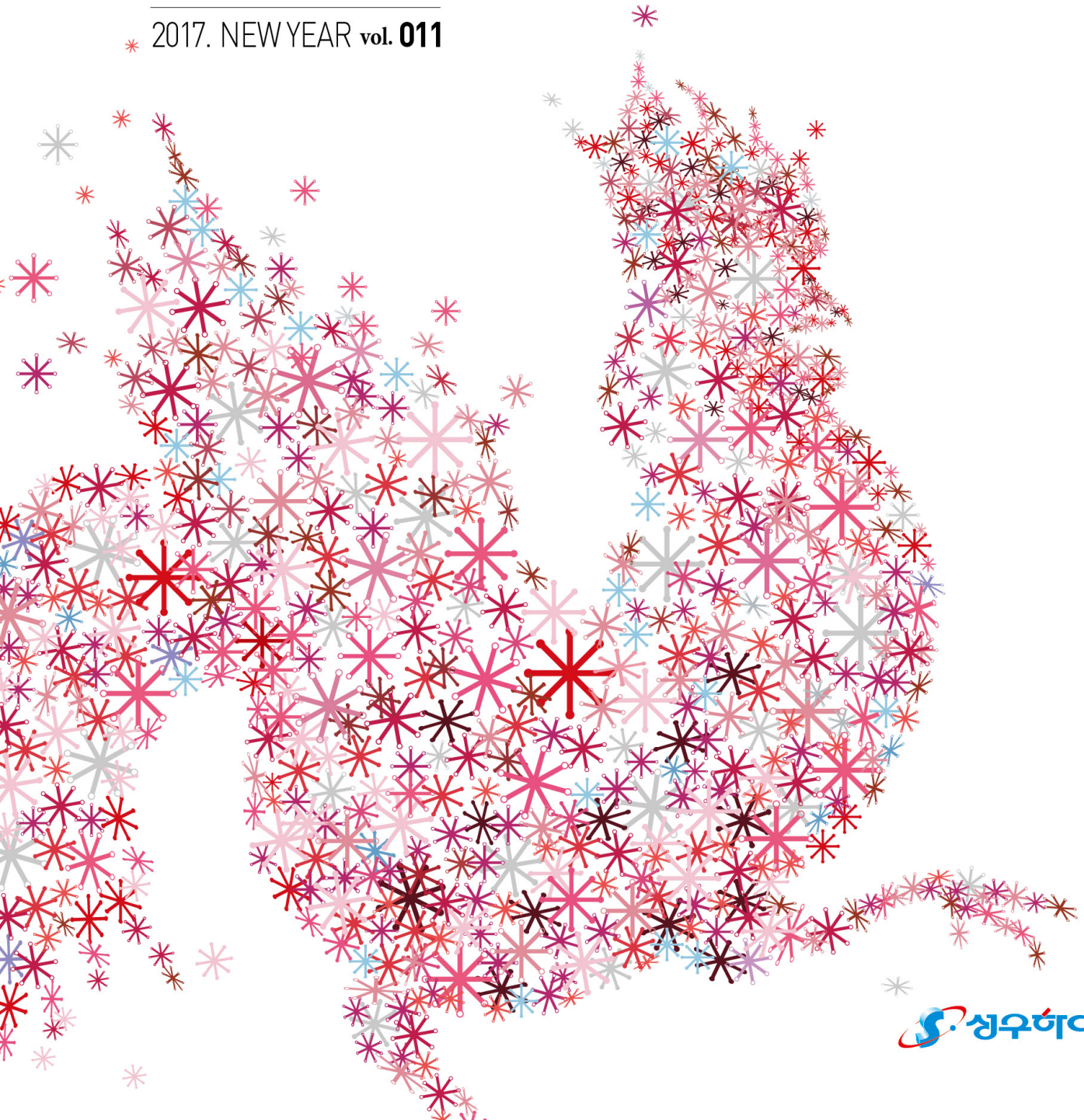


별을 쏘다 ☆

SUNGWOO HITECH MAGAZINE

* 2017. NEW YEAR vol.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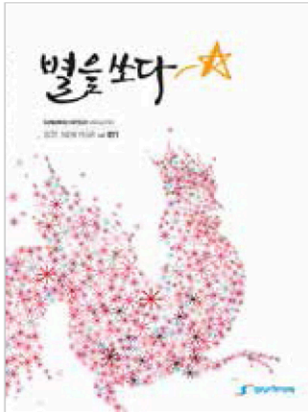


어둠을 사르고 떠오르는
수평선 너머 먼동을 바라봅니다.

붉게 떠오르는 새벽,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희망을 품고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CONTENTS



Cover Story

비상하는 붉은 닭처럼
올 한 해도 힘차게!

04 New Year's Address

소통을 통해 지혜를 모으는
성우하이텍을 만들자!

07 Issue&News

10 Made in Sungwoo

압도적인 기술혁신을 향해
Let's Go!

12 2016 Top News

성우인이 직접 뽑은
2016년 성우하이텍 10대 뉴스

14 Sungwoo Awards

2017년은 이랬으면 좋겠다

16 Education

성우를 빛낼 새로운 별이 떴다!

20 현장24시

굳건한 믿음과 의지로
내일을 향해 달린다

24 Ready, Action

기타 치며 웃음 짙는 '하모닉스'

28 Art Story

클래식 음악을 보다

32 Extreme Sports

도전, 어디까지 해봤니?

34 Cafe Road

겨울에 즐기는 이색 카페 낭만 투어

38 Going

가야왕도 김해

44 Happiness Interior

운수대통 풍수인테리어

46 Zoom In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48 Notice

새콤달콤 우리 아이의
그림일기 엿보기

50 For 40th Anniversary

역사의 역사 속으로

54 Social Contribution

오늘은 성우택 김장하는 날

56 To Do List

도전! 2017 좋은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57 Postcard

성우 느린 우체통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 사가(社歌)를 만나보세요.

별을쏘다★

2017 NEWYEAR vol. 011

발행일 | 2017년 1월 26일 (통권 제11호) 발행인 | 이명근

사보기자 | 강승호, 김도형, 김은진, 김태우, 김태호, 남창식, 문해준, 박노실, 박은혜,
신민환, 안상수, 이성은, 이수승, 이승욱, 정영화, 최성욱, 최수영 (가나다순)

발행처 | 성우하이텍 www.swhitech.com (인사노무팀 Tel. 070-7477-6233)

기획 및 디자인 | 미디어줌 (Tel. 051-623-1906)

“소통을 통해 지혜를 모으는 성우하이텍을 만들자!”

성우하이텍 임직원 여러분!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인 2017 정유년 丁酉年,
활기찬 새해의 첫 출발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난 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장기화된 내수시장의 약화와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내우외환 內憂外患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격적 저성장기에 돌입한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 우리는 변화의 변곡점 變曲點 위에 서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창의·혁신·소통을 100년 기업의 해법으로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질로 더욱 파고드니 ‘소통 疏通’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
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고, 혁신이 끊이지 않는
기업은 오직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통을 통해 지혜를 모으는 성우하이텍을 만들자’는 일념^{一念} 아래,
개성을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획일적인 유니폼을 벗어던졌고,
정직된 분위기를 탈피하고자 사무환경을 개선하였고,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되찾고자 S-Thanks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소통을 위해 더 힘쓸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배려와 섬김’에 답이 있습니다.
임원은 팀장을, 팀장은 팀원을 배려하고 섬겨야 합니다.
지시와 복종 그리고 충성을 미덕으로 삼는 조직은 결코 소통할 수 없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아랫사람이 자유롭게 생각을 펼칠 수 있을 때
창의적인 발상이 넘치는 회사, 혁신이 지속되는 회사,
나아가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우 가족 여러분!
우리 성우하이텍은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획기적인 상상이 생생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회사는 인큐베이터로서 동기를 부여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봄꽃처럼 만발하고,
바라는 소망을 가을 추수처럼 다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성우하이텍 회장

이명준



Let's make Sungwoo Hitech the company that gathers wisdom through communication

To the employees of Sungwoo Hitech!

2017 is a historic year, as it is the 40th anniversary of this company's establishment, I am honoured to be with you on the first day of this New Year.

And,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for your hard work and all that you achieved last year.

Now is the time when we must give serious thought to and reflect on how we are going to take the next step to become a 100-year enterprise.

The economic downturn has continued due to the weakened domestic market and the spread of global protectionism in trade.

As we have entered a period of slow growth, we are standing on the brink of change in an unstable economic situation where it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to plan ahead.

Over the past few years, we have been presenting Creativity, Innovation and Communication as the solutions to turn into a 100-year enterprise.

However, our conclusion is that "Communication"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the values as a company that constantly initiates creative ideas and brings about innovation is only possible through communication.

"Let's make Sungwoo Hitech the company that gathers wisdom through communication,"

We threw away those uniforms to create a culture that recognizes individuality,

We have improved the office environment so no employee is stifled by the rigid atmosphere,

We have introduced S-Thanks to regain our respect and appreciation.

What areas should we focus on for better communication in the future?

The answer lies in "Service and Care."

Executive members should serve team leaders, while at the same time, team leaders should serve their team members.

An organization that follows the virtues of instructions, obedience and loyalty will never be able to communicate effectively.

When the superiors are able to recognize and understand the juniors' feelings which allows the juniors to develop their thoughts freely, our company can develop into an enterprise that is full of creative ideas, enabling us to constantly innovate, and become a 100-year business.

Dear Sungwoo family members!

We, Sungwoo Hitech, will ceaselessly endeavour to regenerate as a company "which all members do their best through the perfect balance between work and life."

We will not be negligent of the powers of motivation that are necessary to nurture the ingenuity and imagination that can become a reality.

Finally, I wish you and your family good health and happiness, and hope that 2017 will be in full bloom like spring flowers, and you achieve a good harvest. Thank you.

Chairman Lee, Myung-Keun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를 향해 Let's Go!”

2017년 시무식 개최

당사는 1월 3일 국내 및 해외 13개 사업장을 화상시스템으로 연결한 가운데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2017년도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모든 임직원이 함께 사가를 제창하며 성우가족 모두 한마음으로 Let's Go! 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했다. 이후 이인구 부장(경영기획팀)의 성과포상 현황발표가 진행되었고, 성과포상, 모범상, 자랑스러운 성우인상 시상이 이어졌다. 성과포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원가절감과 수익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모든 사원이 연구·학습하는 기업문화를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보전1팀 박창수 부장, 생산기술2팀 박기철 부장, 보전기술팀 김광현 부장이 전체 팀을 대표하여 수상했다. 모범상은 한 해 동안 타의 모범이 되는 직

원을 추천받아서 두 차례 심의를 거쳐 45명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자랑스러운 성우인상은 보전기술팀 김광현 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시무식을 맞아 성우가족에게 특별한 기운을 불러넣을 무대가 마련됐다. 손호진 사원(경영기획팀)의 멋들어진 노래와 사내 기타 동호회 하모닉스(보전기술팀 남상운 대리 외 5명)의 신명 나는 연주가 강당을 메웠다.

이번 시무식을 통해 성우가족들은 ‘소통하는 2017년 성우하이텍이 되자’는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붉은 닭의 해 또한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인사정보사업본부 도종복 전무, 노사문화유공 산업포장 수상



12월 15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6년 노사문화유공' 정부 포상에서 산업현장 상생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노사문화유공포상은 산업 현장에서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는 데 높이 기여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목표설정 워크숍 개최



국내 전 사업장의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본부 목표설정 워크숍과 팀장을 대상으로 한 팀 목표설정 워크숍이 12월 2일 ~ 3일 / 9일 ~ 10일 두 차례, 당사 R&D센터 글로벌품질확보동에서 진행되었다. 문샷싱킹(Moonshot Thinking)에 준하는 2017년도 목표설정을 통해 혁신하는 성우하이텍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사무직 신입(인턴)사원 과제 발표회 성료



성우하이텍에서 근무할 새로운 성우 가족들의 열정과 패기가 담긴 과제 발표회가 12월 23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예년과 달리 신입사원들이 직접 제작한 UCC와 연극 공연, 사가 제창으로 재미와 의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을 뿐만 아니라, 성우하이텍이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결들여져 호응을 얻었다.

2016년 정년퇴임식 개최



12월 28일 2016년 정년을 맞은 최사용 부장(제작3팀), 김진균 기장(공정기술반), 이완수 기장, 이팔수 기장(지사 조립계)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25년 이상 근무하신 네 분의 노고와 열정이 묻어난 퇴임사는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1995년에 정년 만 60세를 조기 도입한 당사는 2014년부터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 정년을 연장하여 정기적인 정년퇴임식을 개최하고 있다.



(주)아산성우하이텍, '제10회 작은나눔 큰사랑 한마음 일일호프' 개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동료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제10회 작은나눔 큰사랑 한마음 일일호프'가 11월 18일 아산터미널웨딩홀 8층에서 개최되었다. 일일호프로 모금된 수익금은 전액 도움이 필요한 사우와 지역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다.

겨울愛(애) 희망饌(찬) 김치나눔 행사



성우인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김장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1월 25일 '겨울愛(애) 희망饌(찬) 김치나눔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 600포기는 관내 독거노인, 결식우려아동, 한부모가정 등에 성우인들이 직접 전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주)아산성우하이텍, 이웃사랑 모금 기탁



(주)아산성우하이텍은 12월 29일 신창면사무소와 선장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각각 500만 원씩 전달하였다. 공장장 김종범 이사는 전달식에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김민석 교수의 암 예방 강좌 개최



12월 21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김민석 교수가 방문하여 '암,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어려운 의학 현상을 일상 생활에 빗대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진행된 이번 강좌를 통해 '암 예방 10계명'과 '섬유질 섭취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압도적인 기술혁신을 향해 Let's Go!

기업의 흥망성쇠는
기술력에 달렸다.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기술은
그 자체로도 경쟁력이 되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자체 개발한 신기술이라면
특허를 통한
법적 보호도 받는다.
최근 보전1팀과 설비기술반이
합심하여 천장크레인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특허출원까지 했다.

함께여서 더 값진 결과

크레인업종은 업종에 관계없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요긴하게 사용된다. 그만큼 안전이 요구되는 운반설비이다. 하지만 크레인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사고의 유형도 다양하다. 오퍼레이터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한 실수도 치명적이다. 끼임, 협착, 추락 등 크레인업종으로 인한 직간접 재해는 때로는 인명피해를 부르기도 한다.

크레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장치 설치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기존의 안전장치는 수입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은 반면 효율은 떨어진다는 점. 평소 이러한 문제를 고심하던 보전1팀과 설비기술반은 현장에서 상용되는 천장크레인 안전장치 개발을 결심하게 됐다.

본격적인 개발작업은 2016년 10월부터 시작됐다. 여기에는 기계, 전기, 전자 등 팀원 각자의 전문지식이 총망라됐다. 더불어 경제성, 효율성, 보전성을 모두 확보한 안전장치에 초점을 맞췄다. 그로부터 2개월이 흘렀다. 마침내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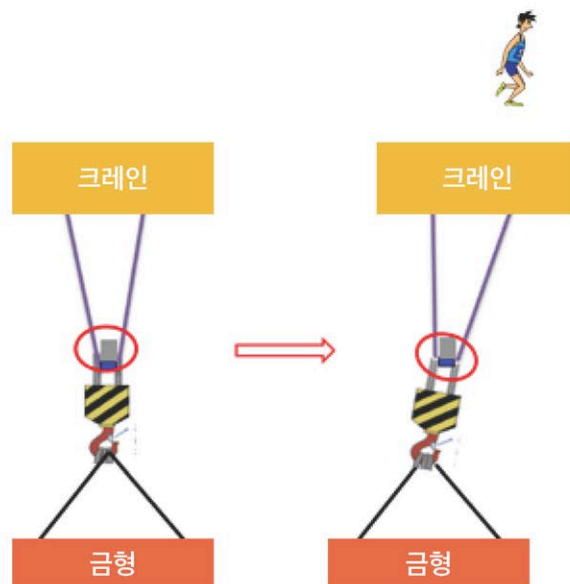
하던 안전장치가 개발 완료됐다. 한마디로 '괘거'였다.

이번 천장크레인 안전장치 개발로, 투자비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현재 서창공장 프레스동과 체코공장 프레스동 천장크레인에 자체 개발한 안전장치가 설치 완료되었고, 향후 전 사업장 및 관계사에 설치될 예정이다.

“우리가 직접 개발한 우리만의 기술, 이만하면 세계적인 원천 기술로 확장 가능하다.”

보전1팀과 설비기술반의 공지는 남다르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술 혁신, 그것은 성우하이텍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

천장크레인 안전장치 기술을 개발한 저변에는 성우하이텍만의 협력과 소통의 이념이 깔려 있다. 거기에 현장에서 갈고닦은 무수한 경험과 기술 개발에 대한 집념이 보태졌다. 보전1팀과 설비기술반의 성과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성우인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



자체 개발한 크레인 안전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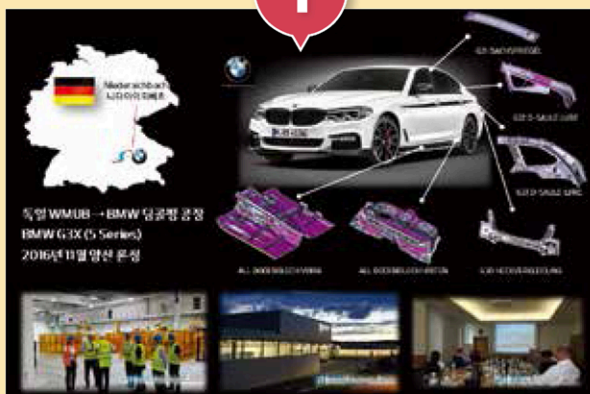
천장크레인의 하부 슈브(sheave)의 각도를 모니터링하여 크레인 움직임을 제어하는 장치이다.



성우인이 직접 뽑은 2016년 성우하이텍 10대 뉴스

꼬끼오~ 우렁찬 닭의 울음소리만큼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었던 발자취를 돌아보았습니다.
성우인이 직접 선정해서 더 의미있는 10대 뉴스,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1



독일 WMUB BMW G3X 양산 론칭(11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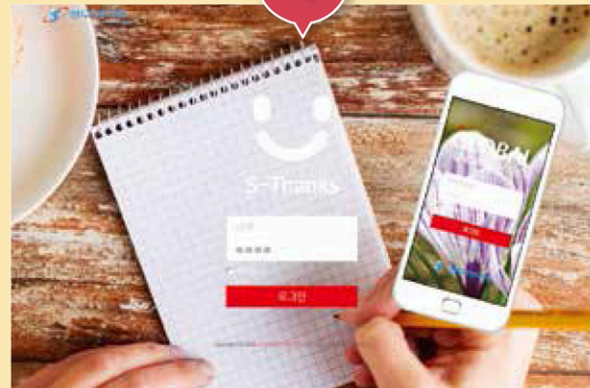
LG화학 배터리 커버 수주 (9월)

3



북미 지점 설립(미국 디트로이트)(10월)

4



성우칭찬제도 S-Thanks 시행(4월)



5



직장 어린이집 착공(9월)

6



멕시코법인 YDm 양산 (5월)

7



스마트 사무환경 개선 (1월)

8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 (3월)

9



성우 탁구장 오픈(4월)

10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 및 일직 폐지(1월)

2017년은 이랬으면 좋겠다

새해를 여는 극적인 순간,
시무식에서 자랑스러운 성우인상과
모범상을 수상한 수상자들을 만났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수상의 영광을 안은 그들에게
2017년의 시작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다.
새로운 도전 앞에 뜨겁게 달아오른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새해 첫날 세운 목표

보전기술팀 김광현 부장 팀원과 소통이 잘되는 팀장!
보전기술팀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新기술 개발품으로 새로운 수익 창출 도전

심양성우 서영환 조장 아이디어의 달인

북경성우 손성일 과장 비용절감만이 살 길! 물류 최소화로 이윤창출!

IT지원팀 이성은 사원 성우의 SMART OFFICE 구축

아산영업관리팀 이윤식 과장 자친 나의 장기(간, 위)들을 정상 수치로 만들기

공정QC 임진영 기사 내가 맡은 라인의 불량 제로 달성

원가2팀 장재원 대리 토익 900점 도전

지사생산팀 최홍대 대리 자동화라인 구축

생산기술1반 하중훈 기장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 보내기

가공2반 손태진 기사 나의 길로 가져! 롤포밍의 달인!

수상 축하합니다!

보전기술팀 김광현 부장 성우 직원을 대표해서 자랑스러운 성우인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보전기술팀을 대표해서 주신 상으로 알고 업무성가로 보답하겠습니다.

심양성우 서영환 조장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선후배, 우리 마눌님(안사람), 승우, 민서 사랑합니다.

IT지원팀 이성은 사원 이제 2년차 사원인 저에게 이런 과분한 상을 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성우인이 되도록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아산영업관리팀 이윤식 과장 매순간 성장하고 다그치고 또 성장하는 성우인이 되겠습니다.

원가2팀 장재원 대리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우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항상 동료들에게 신뢰와 도움을 주는 성우인이 되겠습니다.

체코성우 지용준 차장 동료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그저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밥상을 차려주신 모든 동료들에게 바칩니다.

지사생산팀 최홍대 대리 적극적인 마인드로 매사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017년, 성우하이텍

- 아산자재지원팀 김진수 대리**_ 원활한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성우하이텍
- 심양성우 서영환 조장**_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공정책임자들에게 다방면의 동기부여와 기회를 주어 회사발전에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북경성우 손성일 과장**_ 고객사가 휘청거려도 따라서 휘청거리지 않는 내실 있는 기업
- IT지원팀 이성은 사원**_ 여사원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오래도록 다닐 수 있는 복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아산영업관리팀 이윤식 과장**_ 직원들 간의 소통과 나눔을 통해 개척을 꿈꾸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
- 공정QC 임진영 기사**_ 회사가 목표하는 사업 모두 건승하여 성우하이텍이란 이름이 널리 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사생산팀 최홍대 대리**_ 2016년처럼 지사공장은 흑자공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숲속에서 만난 산신령! “소원을 말해 봐”

- 아산자재지원팀 김진수 대리**_ 젊음이 유지되는 약을 주십시오!
- 북경성우 손성일 과장**_ 제 망할 기억력... 어떻게 안 될까요? πππ
- IT지원팀 이성은 사원**_ 성우하이텍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찾아주세요.
- 아산영업관리팀 이윤식 과장**_ 길을 잃은 것 같으니 집으로 데려다 주시오.
- 공정QC 임진영 기사**_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 원가2팀 장재원 대리**_ 대학 시절로 시간을 돌려주십시오.
낭만을 즐기고 싶습니다.
- 지사생산팀 최홍대 대리**_ 우리 가족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해주세요.
- 가공2반 손태진 기사**_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에게

- 보전기술팀 김광현 부장**_ 말과 행동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다면 오랫동안 좋은 동료로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는 한 해 되십시오.
- 품질보증팀 김대규 과장**_ 일보 양보하는 마음으로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됩시다.
- 북경성우 손성일 과장**_ 삼둥이에 큰 애(?)까지 챙기면서 불평 한마디 없는 마누라! 이제는 내가 더 사랑한다~ 어머니, 장인, 장모님! 아들, 사위 노릇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동료들~ 올해도 Let's Go입니다!
- 아산영업관리팀 이윤식 과장**_ 2016년 한 해 동안 참 열심히 달렸습니다.
행복이라는 도착점을 향해 다시 한 번 신나게 달려봅시다.
- 지사생산팀 최홍대 대리**_ 항상 내편이 되어주는 우리 와이프와 딸에게 당신들이 있어 내가 행복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와이프만큼 오랜 시간 함께하는 우리 직장 동료들, 웃으면서 즐겁게 일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우의 꿈과 미래
희망과 용기가 넘치는
열정과 함께라면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 성우의 것



성우를 빛낼 새로운 별이 떴다!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작된
서류전형부터 2개월여의 전형을 거쳐
최종합격 발표까지,
마음을 졸였을 취업준비생들.
드디어 '성우하이텍 신입(인턴)사원' 명찰을 달았다.
그들은 12월 19일부터 4박 5일간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진행된 입문교육에 참가했다.
본격적으로 성우인 되기에 돌입한 신입사원들의
가슴 설레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본다.



이토록 눈부신 신입사원

신입(인턴)사원들의 4박5일 일정은 가을 꽃게마냥 알찼다. 한나절 동안, 신입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사회인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을 학습하고 실습하며 학구열을 불태웠다. 저녁에는 조별 과제를 준비하느라 숨겨두었던 끼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올해 조별 과제는 예년과 달리 신입사원들의 순수창작물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책임감은 무거웠지만 창의력은 무한히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팀별 과제 중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과정은 바로 '로보텍 프로젝트'. 하나의 로봇을 만들기 위해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인 로봇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완성시킨 거대한 로봇은 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에 등장하는 로봇보다 훨씬 거대하고 멋있어 보였다.

여기서 잠깐, 4박 5일 교육 일정 동안 신입사원들에게서 이상한 점이 계속 발견됐다. 교육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특출한 행동들을 했던 것이다. 누군가는 설 새 없이 중얼거렸다. "내 이름은 왕소심, 내 이름은 왕소심." 또 누군가는 "성우스타인"을 외쳤다. 지하주차장 귀퉁이에서는 계속 "NG!" 소리가 들렸다. 무엇 때문일까? 마침 신입사원이 지나갔다. 앞을 가로막고 왜 그러느냐 물어봤다. 그때서야 의문이 풀렸다. 팀별 과제 발표회 준비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신입사원 교육일정 중 마지막 날 있을 과제 발표회의 포인트는 '자율'이다. 발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까지 신입사원들이 자율적으로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내야 했기에 보인 '수상한 움직임'이었다.

4개 팀으로 나누어 각 팀만의 개성을 고스란히 살린 발표를 준비하느라 저마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교육장 한쪽에 마련된 티 테이블 위의 믹스커피는 놓는 족족 동이 났다. 신입사원들은 5일이 불과 5분처럼 흘러갔다고 말한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신입사원들, 4박 5일 동안 교육장에서 풍기던 귀퉁한 냄새.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켜도 소용없던 그 의문의 냄새는 신입사원들이 열정을 불태운 증거로 남았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교육 마지막 날, 서창공장 대강당, 신입사원들이 밤낮으로 준비한 과제 발표회가 열렸다. 연극, UCC, 강연, 프로그램 중간 중간 들어간 CF까지. SBC(Sungwoo Broadcasting Corporation) 방송국 개국이라는 콘셉트로 과제를 풀어낸 신입사원들의 열정적인 무대는 임직원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여러분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성우 신입사원들은 바로 지금입니다!” 신입사원들 저마다의 혼을 갈아 넣은 과제 발표회, 지금부터 함께 보자.

1조 SBC 연극 채널 <신입사원의 하루>

권옥근, 길영생, 김병인, 김성윤, 김태균, 오원규,
이도운, 이명구, 이정빈

1조는 ‘신입사원의 하루’라는 주제로 ‘연극’을 준비했다. 과제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빅재미를 터트려야 한다는 부담감에 사로잡혔다는 1조는 ‘왕적극, 나소심, 한눈치’라는 세 명의 신입사원 캐릭터가 등장해 다양한 신입사원 유형을 보여주었다. 끼가 철철 흘러 넘쳤던 연극으로 ‘박장대소’ 리액션이 강당을 메웠고, 1조의 빅재미 노이로제는 깨끗이 사라졌다고 한다.



2조 SBC 교육 채널 <TEDx성우하이텍>

김성민, 김영진, 박병인, 신지훈, 이인건, 이주현,
이충만, 조현우, 최재영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의 강연이 개최됐다. ‘그린 성우의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문화’라는 주제로 알찬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고심하던 2조는 강연회인 테드를 차용했다. 지금으로부터 5년 후 테드 강연을 연 성우하이텍. 성우하이텍은 5년간 황사가 심한 중국에는 마스크를 나누어주고, 황량한 멕시코에는 나무를 심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사내에서는 포스트잇에 소원을 쓰는 문화가 생겨났다는 것. 성우하이텍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하니 기특하다.





3조 SBC 시네마 <성우의 10년 후>

김인준, 박호성, 서승표, 윤영준, 정형구, 조봉모, 최용주, 최한렬

신입사원들의 영화 데뷔작이 상영됐다. 마지막 순서인 만큼 재미와 교훈을 다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3조, 급기야 UCC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주차장에서 끝개를 끌며 달리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고, 영어인데 영어 같지 않고 일본어인데 일본어 같지 않은 외국어들이 총출동했으며, 밤샘 편집에 편집을 거듭한 역작이었다.



4조 SBC 시사교양채널 <성우스타K>

김용두, 박성화, 오승화, 유병린, 양준혁, 이정욱, 조재은, 허현이

성우하이텍의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리는 오디션이 펼쳐졌다. '신성장동력 아이디어'라는 4조의 주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어려운 주제였다.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뿌듯하기 그지없었다는 4조, 신입사원들의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선배들의 동영상 촬영이 쉼 없이 계속됐다.



현장24시

굳건한 믿음과 의지로

내일을 향해 달려간다

서창공장 공정기술반





사방에서 그들을 찾는다. 바쁘게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가 묵직하게 와 닿는다. 그들의 걸음걸음에 '모든 생산라인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이 담겼기 때문이다. 어떠한 난관에 부딪쳐도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공정기술반. 그들이 있어 언제나 든든하다.

전사적 보전활동, 우리가 책임진다!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오후 두 시의 서창공장 공정기술반. 약속한 사람들은 떠나고 없다. 가버렸단다, 코일센타로, 야속하다고 원망할 수도 없다. 점심도 거른 채 지원요청이 오는 순간 떠나는 일은 그들에게 다반사이니까.

공정기술반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국내 여러 사업장은 물론, 해외법인까지 도처에 나가 있어 다른 반에 비해 많은 인원이라고 해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설비 근처에 상주하다 보니 반원들이 분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원들을 한 번에 만나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다. 다시 약속을 잡고 촬영에 임하는 날에도 빈자리들이 송송 느껴진다.

공정기술반의 업무는 명료하다. 생산라인, 로봇, 지그, 용접설비 등 기계 장치들이 가동하도록 유지하면 된다. 이 명료한 업무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진다. 매일 설비를 점검하는 일상보전, 고장 전에 미리 검사하여 조정하는 예방보전, 고장 후에 수리를 하는 사후보전,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고장발생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개량보전이 모두 공정기술반의 업무이다. 더하여 신차를 양산하기 전, 라인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제거·수정하는 검수작업도 공정기술반의 주요 업무이다.



만반의 준비 & 투철한 책임감

“견인차 기사들이 식당엘 가면 항상 돈을 먼저 내고 밥을 먹는다고 하죠? 언제든 전화 오면 견인하러 가야 하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완벽한 설비는 없다. 설비는 언제든 문제될 수 있다. 어디서든 문제될 수 있다. 어떤 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밥 한술 입에 넣다가도 연락이 오면 부리나케 달려가는 의지(意志)만으로는 만반의 준비라고 할 수 없다. 현장에 빨리 도착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불필요한 부지런함일 뿐이다. 어떠한 고장에도 빠르고 정밀하게 고칠 수 있는 지식까지 완비하여야 만반의 준비라고 할 수 있다.

“보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비에 처음 접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도 왕왕 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보는데도 설비가 작동하지 않는다. 어느새 등이 식은땀으로 축축하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슬그머니 들기도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공정기술반이 아니다. 내가 고칠 수 없으면, 생산을 위해 애썼던 많은 이들의 공로가 물거품이 되어버릴 테니까. 긴 시간을 투자한 끝에 힘차게 작동하는 설비를 보며 느끼는 희열! 투철한 책임감 덕분에 느낄 수 있는 이 감정을 공정기술반 반원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경험해보았다.





다방면의 지식이 요구되는 보전업무

‘생산성 향상 합격, 비가동 감소율 합격, 라인자동화 합격도 공정기술반’

공정기술반 화이트보드 위 빼돌빼돌 적힌 손글씨가 눈길을 끈다. 비록 단 한 줄의 짧은 문장이지만, 사명감은 그 길이에 견줄수 없다.

공정기술반 반원이라면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최근 설비가 대형화·복잡화되어 기존의 지식만으로는 설비를 다룰 수 없다. 설비를 다룰 줄만 알면 끝나는 것도 아니다. 보전, 생산, 품질, 영업 등 다양한 방면에 지식이 있어야 작업자를 편리하게 하고, 불량률을 낮추며, 수리 시간을 단축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답은 현장에 있다고 공정기술반 반원들은 믿고 있다. 현장의 설비를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기 위해 애쓴다. 베테랑 선임들은 현장에서 자신들의 지식을 전수하고, 후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워 준다. 소통이 지식 향상으로 이어지는 순간이다. 선임과 후임이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는 공정기술반의 미래는 찬란하다.

언제나 함께, 저력을 발휘하며

‘어느 현장에서나 각자의 몫에 최선을 다하는 일당백의 공정기술반’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 자주 얼굴을 맞댈 수는 없어도, 공정기술반에는 이런 믿음이 잔잔히 흐르고 있다. 현재 나현진 반장은 오랜 기간 독일법인에 파견 중이다. 그래서 김진수, 박규진, 오유택, 정영주 조장 4명이 공정기술반을 이끌어가고 있다. 나 반장이 마음 놓고 독일법인에 파견 중인 것도 이 네 사람에 대한 믿음 덕분이다. 업무의 공백은 최대한 채우고 있지만, 나 반장 특유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빠진 공백은 채울 수가 없단다.

공정기술반은 2017년 역시 바쁘고 열정적인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말한다. 올해도 국내외 이곳저곳을 안전화가 닳도록 누빌 테고, 공정기술반 동료들은 뚝뚝 떨어져서 자주 만날 수도 없겠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저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성우하이텍의 옥도정기(沃度丁幾-아까장끼)가 되겠습니다. 상처에 만능이라 불리던 빨간약처럼, 설비의 어떠한 고장도 말끔하게 치료할 수 있는 공정기술반이 되겠습니다.”

마음만은 우리가
지미 핸드릭스 아닌가

기타 치며 웃음 짓는 ‘하모닉스’





깊어진 겨울밤, 서창공장 강당에서 감미로운 선율이 흘러나온다.
 여린 듯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섞인다.
 즐거운 웃음소리도 얹혀 덩달아 음악이 된다.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연주하는 것일까?



기타를 잡고 성우의 낭만 아이콘이 되다

달콤한 멜로디를 따라 문을 열고 들어가 본다. 기타를 합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기타'라는 낭만적 취미를 공유하는 하모닉스 회원들. 사내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자 시작된 하모닉스는 채 1년이 안 된 신생 동호회로, 보전기술팀 남상운 대리가 회장을 맡고 있다.

“하모닉스는 기타의 세로 줄(프렛)에 가볍게 손가락을 대고 두 개의 음을 묘하게 끌어내는 연주법입니다. 동호회 이름 '하모닉스'에는 기타에 관심 있는 여러 사람이 모여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를 담았지요.”

낭만의 아이콘 하모닉스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8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서창공장 5층 도서실에서 모임을 가진다. 출입문 옆에는 '통기타 서클 하모닉스 왕초보 레슨 안내'라는 포스터도 붙어있다. 기타를 처음 배우는 사람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스트로크, 코드 잡는 법, 기타 관리법 등을 가르친다. 통기타에 관심이 있는 성우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재 하모닉스 동호회 회원은 총 15명. 회원 수가 다른 동호회보다 적지만 그래서 1대 1 맞춤 레슨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출중한 연주 실력을 갖춘 고수부터 막 기타를 잡기 시작한 초보자까지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점도 하모닉스의 특징이다. 동호회 활동을 체험해 보고 싶는데 기타가 없다면 기꺼이 자신의 기타를 잠시 내어주겠다는 남상운 대리. 클래식 기타의 스트링을 훑으며 마음을 활짝 열어 보인다.





“푸른 바다 저 멀리서 나를 부르는~♪”

2017년 시무식, 하모닉스는 몇 달간 연습한 ‘내일이 찾아오면’이라는 곡을 멋지게 연주했다. ‘새해에 통기타 선율과 노랫소리가 회사를 희망으로 물들였다’는 임직원들의 칭찬이 들려온다. 올해 하모닉스는 시무식 공연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사내 행사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모닉스 회원들은 무엇보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악기를 취미로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기타를 시작할 때 쉬운 곡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만큼 노력도 요구된다. 그와 비례해서 쉼 없이 늘어나는 연주 실력을 체감할 수 있으므로 성취감도 무척 크다. 기타를 배우기로 했다면 애정을 듬뿍 쏟을 수 있는 멋진 기타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는 하모닉스 회원들의 팁. 꾸준히 기타를 연주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함께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깊어가는 겨울을 따뜻한 낭만으로 채우는 사람들. 하모닉스 회원들이 연주하는 기타 선율은 기쁨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는 성우인의 하모니가 될 것이다. 2017년, 하모닉스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다. 🎸





보전기술팀 남상운 대리

통기타 하나만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 기타의 매력이지요.



생산관리팀 이동진 사원

한 공간에서 다 같이 모여 취미생활을 한다는 게 즐겁습니다. 기타 소리는 모두를 집중하게 만들죠.



보전1팀 변호중 대리

‘기타는 제 목숨입니다’는 농담이고, 취미생활로는 최적인 듯합니다.



보전2팀 안현중 사원

기타는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통기타 하나만으로 낭만적이고 감동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죠.



보전2팀 편경주 대리

하모닉스의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좋습니다. 회사에서 악기를 연습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기분전환도 할 수 있어 GOOD입니다.



금형반 이형욱 기장

메마른 감성을 충전하기 위해 하모닉스에 가입했는데, 소수정예에 1대 1 맞춤형 레슨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보전1팀 한주원 사원

기타는 일상 탈출 버튼. 연습을 통해 멋진 연주곡을 완곡했을 때의 쾌감이 아직까지 제가 기타를 취미로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보전기술팀 이형국 사원

음악을 좋아하는 동료들로 구성되어, 끈끈한 관계를 토대로 조화를 이루면 더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하모닉스의 큰 매력입니다.



보전1팀 김태훈 사원

작년 일렉기타리스트인 잉베이 맘스틴의 음악을 우연한 기회에 라디오로 접하게 되었고, 현란한 기타 소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보전2팀 정재민 사원

통기타로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의 스펙트럼이 넓어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습니다. 통기타는 점점 알아가고 싶은 정다운 친구 같은 존재예요.



보전1팀 문진기 사원

기타 연주는 어렵지만 멋진 사람들과 멋진 음악에 빠질 수 있어요.



보전기술팀 이운호 사원

통기타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 자신감을 갖게 하는 매력을 지닌 것 같습니다.



품질경영팀 지나영 과장

대학생 때 밴드를 하면서 기타는 항상 숙제로 남아있었어요. 기타는 음악에 대한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는, 조금씩 알아갈수록 참 매력 넘치는 악기입니다.



보전1팀 양대규 사원

평소에 ‘한 가지 악기는 연주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하모닉스 회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뭐야? 보다

클래식 음악?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음악 아니야?
요새 누가 클래식 음악을 듣지?
과연 그럴까?

당신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이 너무나도 게을러서(?) 통화연결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하이든의 <세레나데>를 듣게 되었을 것이다. 지난 주말 아침 창석한 겨울식, 세상하지 못한 웨딩플래너가 고전대로 음악을 사용했다면, 신부가 입장할 땐 바그너의 <혼례의 합창>, 신랑 신부의 퇴장에는 멘델스존의 <결혼행진곡>을 듣고 왔을 것이다. 오래 전, 연인과 이별 후 수없이 들었던 이현우의 '겨울' 2악장이었다. 새빨간된 국은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2악장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일상에서 수많은 클래식 음악을 만나게 된다. 자, 이제 클래식 음악이 독특하게 사용된 영화 두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클래식 음악과 영상이 절묘하게 만나는 순간, 귀로만 들던 클래식 음악을 눈으로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Classic



©Silver Pictures, Warner Bros.

음향효과마저
클래식 음악이라니,
감독의 섬세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완벽하게 통제된 미래 V가 돌아왔다!

— 브이 포 벤데타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된 사회는 어둡고 침울하기만 할까? 아닐 수도 있겠다. 많은 국민은 TV를 보며 깔깔거리고, 생활의 불편함 없이 윤택하게 살 수도 있다. 그래서 더욱 두렵고 끔찍하다. 누군가의 비유처럼 자유로운 비판의식 없이 길들여진 인간은 배부른 돼지와 같다.

‘브이’(휴고 위빙 분)가 탄 지하철의 출발과 함께, 이비(나탈리 포트만 분)가 묻는다.

“음악 좋아하세요?”

이어서 장엄하고 경쾌한 음악이 시작된다. 곧이어 수많은 가이 포크스¹⁾ 가면을 쓴 런던 시민들이 일제히 국회의사당을 바라보고, 음악은 절정을 앞두고 숨 고르기를 한다. 이비와 핀치 경감(스티븐 레이 분)의 짧은 대화 한 컷, 지하철 속 ‘브이’의 상반신 한 컷이 지나가며 잠시 숨을 고르던 음악이 점점 고조된다.

어둡던 영화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신나는 음악이 숨 쉴 새 없이 흐르기 시작한다. 음악에 맞춰 하나씩 하나씩 폭발하는 국회의사당! 클라이맥스와 함께 폭발하는 시계탑! 여기저기 터지는 폭죽!

1) 가이 포크스(1570~1606) : 가톨릭 탄압에 저항하며 ‘화약음모 사건’을 일으킨 영국인. 영국에서는 거사가 일어난 11월 5일을 ‘가이 포크스 데이’(Guy Fawkes Day)로 지정해 기념함.



2) 표제음악 : 특정한 이야기 · 사상의 내용을 표현한 음악. 음악 자체에 절대적 가치를 둔 절대음악의 반대되는 음악.

이 장면에 사용된 음악은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이다.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던 전쟁을 상징한다. 이 곡 사이에는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예즈〉, 제정 러시아의 국가 〈신이시여, 차르를 보호하소서〉가 연주되며, 전쟁을 상징하는 음악인만큼 야외에서 연주될 때는 실제 대포를 사용하기도 한다(실내 연주에서는 폭죽으로 대체하기도 함).

「브이 포 벤데타」에서 〈1812년 서곡〉이 흐를 때 들렸던 대포소리와 종소리는 영화 속 음향효과가 아닌 〈1812년 서곡〉 속의 대포소리, 종소리이다. 음향효과마저 클래식 음악이라니, 감독의 섬세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차이코프스키는 이 곡을 “애정 없이 쓴 곡이라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평가했지만, 오늘날 표제음악²⁾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곡이며, 100여 년이 지나 영상과 결합하여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고정된 가면을 볼 때마다 다른 표정이라고 느끼는 것은 지나치게 영화에 몰입해서일까? 모든 런던 시민이 무장한 군인을 넘는 장면, 가면을 벗으니 환희에 찬 얼굴이 드러나는 장면에서 느껴지는 카타르시스! 하다 못해 ‘나탈리 포트만은 식발을 해도 나탈리 포트만!’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화를 한 번 감상해 보시길 권한다.

적인가 동지인가

-밀정

잔잔하고 야릇한 음악과 함께 연회장의 문이 열린다. 가녀린 관악기의 독주가 계속된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그들의 환한 미소와 달리 구슬픈 관악기의 멜로디는 반복되고, 악기가 하나둘씩 추가되면서 시나브로 웅장함을 더해간다.

이제 웬만큼 악기들이 연주된다 싶은 순간, 히가시 부장(츠루미 신고 분)이 등장한다. 얼굴 한가득 승리의 미소를 머금은 채, 그의 앞에 전달되는 샴페인 두 잔과 봉투 하나. 샴페인 한 잔을 들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근엄한 목소리로 내빈들에게 ‘건배’를 외친다. 기분과 달리 샴페인이 달콤하지만은 않은 듯하다. 이때 눈에 들어오는 금색 봉투. 봉투 속에 있는 것은? 히가시의 표정이 한껏 일그러진 후, 곧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살핀다. 반복되는 멜로디에 어느새 수많은 악기가 입혀져 연주되고 있다.

두리번거리던 끝에 연회장 입구에서 마주친 이정출(송강호 분)의 눈길. 무표정한 얼굴로 잔을 들어 올리고, 무심하게 밖으로 퇴장한다. 히가시의 입 주변은 더욱 실룩거린다. 음악은 점점 더 절정으로... 모든 악기가 동시에 그들이 낼 수 있는 최대치의 소리를 내며 빠바바 빠바바 밤! (이 음악의 끝과 영화의 장면은? 스포 금지!)



성우인의 스포츠 클라이밍 도전기

도전, 어디까지 해봤니?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스포츠 클라이밍(Sports Climbing)!

대체 어떤 매력이 그토록 중독을 일으키는지 궁금했던

김윤도·김민균(이상 영업관리팀), 강성진(생산관리팀) 사원.

새해를 맞아 직접 도전해보기로 했다.

과연 성우인들은 스파이더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장소 제공 | 하이클라이밍
주소 |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공내길 654-168, 2동
문의전화 | 051-728-7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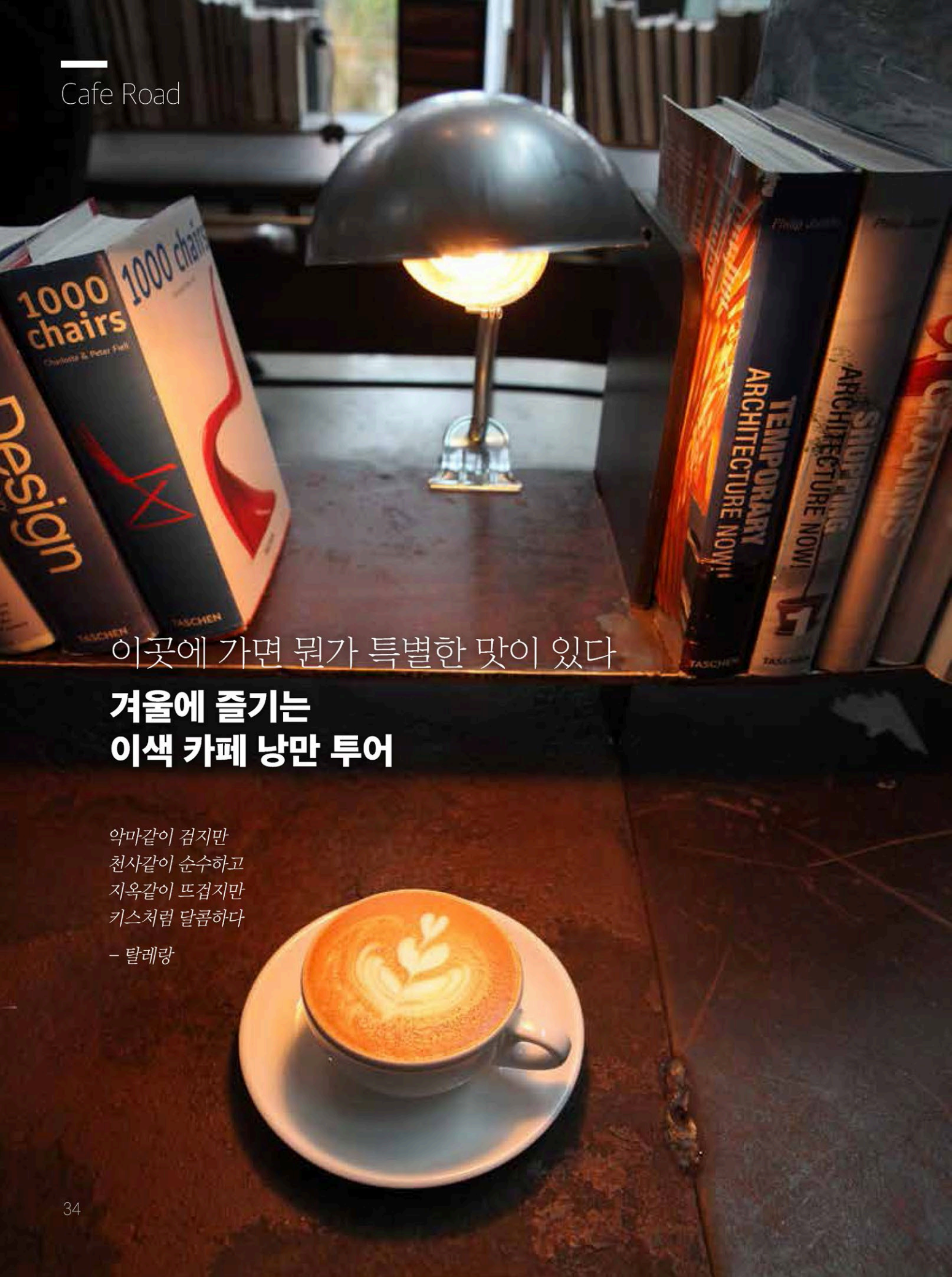
오를수록 짜릿하다

성우인들이 찾은 곳은 기장에 위치한 '하이클라이밍'. 정관공장에서 자동차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암벽등반장에 들어서니 벽면에 박힌 알록달록한 홀드의 배열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로프에 매달려 확확 날아다니는 클라이머들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준비물은 간단했다. 클라이밍화(암벽화), 초크(미끄럼방지 탄산마그네슘 가루), 로프, 안전벨트. 이것만 있으면 거뜬히 암벽을 오를 수 있다. 모두 대여가 가능하니 초보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먼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장비 착용 방법을 배웠다. 안전벨트는 앞뒤를 확인한 후 바지를 입듯이 꺼서 자신의 허리와 다리에 맞게 크기를 조절한다. 로프는 클라이머의 안전을 지켜주니 생명줄과 같다.

드디어 클라이밍 준비완료! 왕년에 턱걸이 좀 해봤다며 자신만만하게 홀드를 잡은 성우인들. 막상 올라가보니 '부들부들', 그립(Grip)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몇 걸음도 못 가 떨어지고 만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근력, 지구력, 균형감과 유연성, 집중력 등 다양한 신체능력이 요구되는 전신 운동이다. 게다가 집중력을 키우기에 안성맞춤이라 아이들과 스포츠 클라이밍을 함께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다.

2017, 성우인의 도전은 계속 된다

클라이밍의 기초 '손-발-발, 손' 3지점 법칙은 스포츠 클라이밍의 기본이다. 홀드를 잡은 팔을 중심으로 두 발을 정확히 삼각형이 되도록 양 옆을 디뎌야 한다. 어디쯤의 홀더를 잡고 발은 어디에 둘지 미리 루트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편하다. 처음 클라이밍을 배우면 손이 나가야 할 타이밍에 발이 나가고, 정작 발이 나가야 할 때 손이 나가면서 삼각형 모양이 흐트러지기 쉽다. 서로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며 몰입하다 보니 점점 요령이 생긴다. 처음보다 꽤 안정된 자세로 오르는가 싶더니 정상에서 브이를 그리며 사진을 찍는 여유도 부려본다. 한 시간의 체험 시간은 그렇게 순식간에 종료됐다. 체험단에 참가한 사람들은 '근육통으로 이틀은 누워있어야 할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면서도 스포츠 클라이밍의 짜릿한 세계에 한껏 매료되었다. 손가락 구석구석까지 온 몸의 신경과 근육을 깨워 정상에 오르는 과정과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의 희열, 성우인의 도전정신을 닮아있는 스포츠 클라이밍의 세계! 성우인의 2017년도 이처럼 짜릿하고 즐거운 도전의 연속이 아닐까 예감해본다.



이곳에 가면 뭔가 특별한 맛이 있다

겨울에 즐기는 이색 카페 낭만 투어

악마같이 겹지만
천사같이 순수하고
지옥같이 뜨겁지만
키스처럼 달콤하다
- 탈레랑



아라비카, 바리스타, 로스팅. 커피와 연관되는 단어들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좋은 사람과의 좋은 시간, 좋은 만남을 약속하는 부산 인근의 특별한 카페들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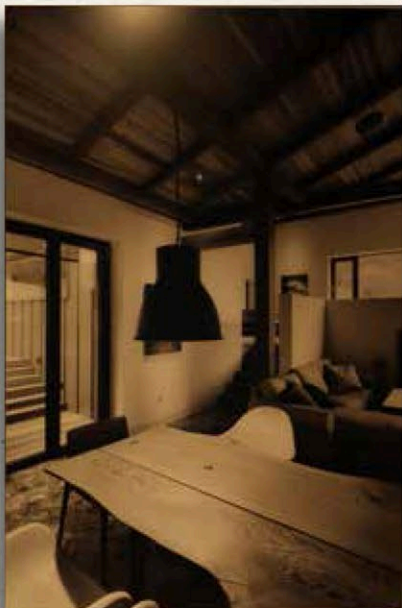


부산 수영의 ‘테라로사’

고려제강 공장을 재생 건축한
복합문화공간 ‘F1963’ 안에 자리하고
있다. 옛것과 새것을 조화시켰다는
안내문처럼 공장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카페 분위기와 절묘하게
어우러져 큰 호평을 얻고 있다. 전시된
탈곡기 등의 기계가 공장이라는
테마를 진하게 살린다.
테이블이 다채롭고 개성이 있는데
길게 뻗은 바는 도서관을 연상시킨다.
막 구워 낸 천연 발효빵과 커피 한
잔이면 독서 준비 완료. 스탠드 조명이
분위기를 한껏 잡아준다.
4~5인 이상의 테이블들은 크고
넓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과 공간을
달리하는 배치로 마음 놓고 수다를
떨거나 토론하는 데 제격이다.
단체모임을 할 수 있는 대형 테이블도
눈에 띈다. 명성에 걸맞게 잘 로스팅
된 원두의 풍미 역시 최고다.
‘F1963’의 입구와 카페 테라로사는
이제 부산을 찾는 이들의 공식
포토존이 되어가고 있다.

【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9시 】
수영구 구락로 123번길





범어사 인근의 '더 팜'

처음 찾아가는 사람들은 당황치 말자. 정보가 없는 사람이라면 산 아래 하마마을을 지날 때쯤 과연 카페가 나올지 의심을 품게 된다. 여기서 마음 편히 좀 더 가야 개울가 건너에 건축예술이라 할 만한 카페가 보인다. 갤러리 카페라는 콘셉트대로 사진작가가 마을과 '더 팜' 카페를 찍은 사진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프로젝트빔은 하마마을의 생생한 사진 기록을 벽에 비추고 있다.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로 인테리어를 꾸며 놓았다. 점장에게 추천받은 차가운 카라멜 마끼아또와 청포도 슬러시는 정말 맛있다. 너무 달지 않고 적당히 기분 좋은 달콤함에 원두커피의 진하고 구수한 향미와 카라멜향이 조화되어 환상이다. 청포도 슬러시도 단맛에 길들여진 입에는 조금 무심한 듯 느껴지지만 두어 번 맛을 보면 감미료를 넣지 않은 깊고 상큼한 맛에 매료된다. 실내 공간은 1층과 2층, 반지하처럼 내려간 곳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야외 벤치도 있다. 작은 연못조경이 자연친화적인 느낌이다. 단체석은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다.



【 영업시간 오전 11시 ~ 오후 10시 】
금정구 하마2길





양산 물금의 ‘구름에 반하다’

카페 이름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더니 카페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다. 주인장은 목공예를, 부인은 도예공예를 한다니 이곳의 아이덴티티는 ‘예술가의 집’이라고 해야겠다. 부부가 카페의 인테리어 소품을 직접 다 만들고 꾸몄다.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빈 테이블이 많지 않다. 천장이 유리라 하늘이 훤히 보이는 것이 포인트다. 맑은 날이면 뭉게구름이, 흐린 날이면 심술구름이 머리 위로 흐른다. 어느 날이고 구름에 반할 수밖에. 하늘과 구름은 눈으로 음미하고 입으로는 커피를 음미한다.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자연채광이 너무나 멋스럽다. 비가 와도 걱정 없다. 천장 유리를 때리는 빗소리가 오히려 감성을 자극하지 않나. 이색적인 카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카페이다. 겨울에는 그 비싸다는 참숯을 땀감으로 벽난로에 불꽃이 피어오른다. 은은한 참숯향과 온기는 몸과 마음을 데워준다. 양산 인근에 ‘구름에 반하다’가 있는 것은 어쩌면 행운일지도! 



〔 영업시간 오후 2시~11시 〕
〔 양산 물금읍 오봉3길 〕

가야왕도伽耶王都 김해

찬란한 역사의 품에 안겨 1박~ 2일!

김수로왕과 허황옥의 가슴 떨리는 로맨스,
강력하고 화려했던 철기문화,
철새 날아오르는 낙동강변의 그림 같은 풍경...
찬란한 옛 왕도의 영광과 다양한 문화 체험 명소가 어우러진 김해.
매력 만점 김해를 만나는 1박 2일 코스로, GOGO!

Day 1.

AM 10:00

레일바이크에서 와인동굴까지

김해낙동강레일파크는 레일바이크 구간, 열차카페,
그리고 와인동굴까지 이어져 있어 한 번에 즐길 수 있
다. 와인동굴은 김해의 특산물 산딸기 와인의 저장고로,
다양한 콘셉트의 공간이 눈길을 끈다. 그런데 막상 저장
고는 눈에 띄지 않는데?! 힌트를 주자면 거꾸로 하우스를
먼저 찾아볼 것! 숨어있는 와인저장고를
찾아보자!

김해낙동강레일파크 www.ghrp.co.kr
예매 : 1544-1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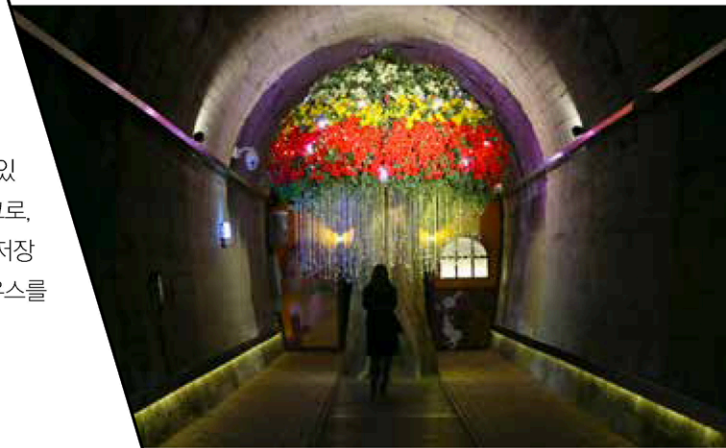
1박2일 추천코스

Day 1.

10:00 김해낙동강레일파크
11:00 열차카페와 와인동굴
14:00 수로왕릉
15:00 김해한옥체험관

Day 2.

10:00 대성동고분박물관
11:00 봉황동유적
12:00 김해국립박물관(어린이박물관)
15:00 김해가야테마파크



PM 14:00

수로왕릉 옆에서 하룻밤

“‘먼 바다 건너 가락국에 알에서 왕이 나셨다. 공주
를 보내어 혼인시키라.’ 신의 목소리를 들으신 부모
님이 저를 이곳 가락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유
타국의 공주 허황옥(許黃玉)이라 하옵니다.”
왕릉 옆 김해한옥체험관에서 하룻밤을 보내다면 꿈속에
서나마 왕과 왕비가 되어 애절한 러브스토리를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

김해한옥체험관 www.ghhanok.or.kr
숙박문의 : 055-322-4735



Day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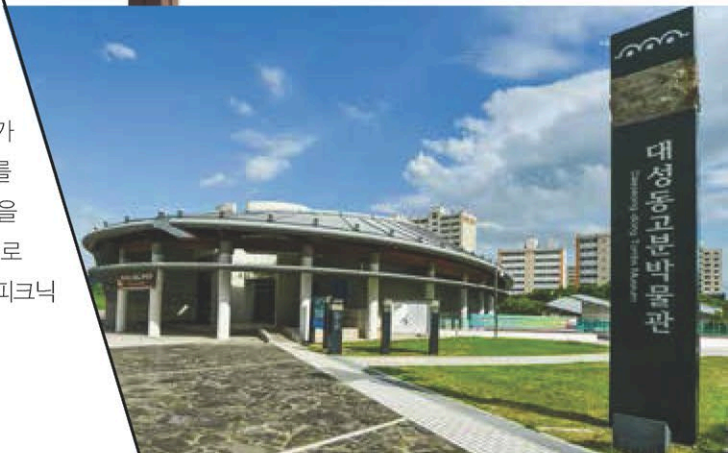
AM 10:00

눈길 닿는 곳이 모두 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은 유물 중심의 전시보다는 입체모형과 영상자료, 실물 크기의 무덤 복원, 금관가야인의 모습과 생활상 복원 등 다양한 보조 자료를 통해 고대의 구아국과 금관가야의 사회와 문화상을 재미있고 알기 쉽도록 했다. 국립김해박물관과 서로 보완적이다. 근처의 봉황동 유적지는 꼭 들르자. 피크닉 장소로도 손색없다.

대성동고분군박물관 ds.gimhae.go.kr

안내 : 055-330-6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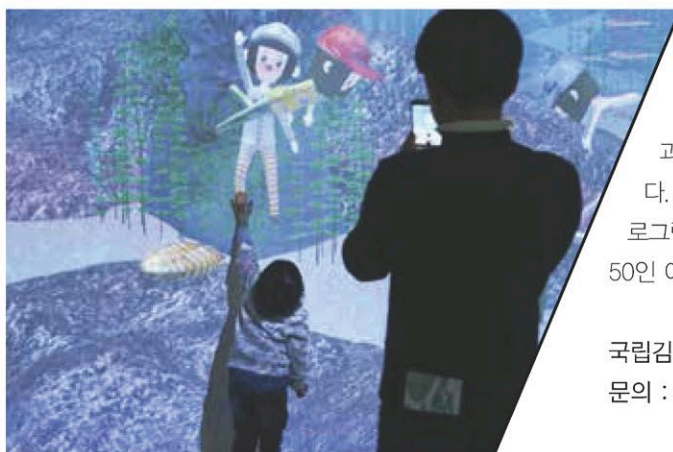
AM 11:00

박물관이 살아있네!

국립김해박물관은 전시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 공연, 무료체험행사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라면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과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어린이박물관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공연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이 모든 것이 무료이기까지. 한 회 차에 50인 이하 관람으로 제한이 있으니 미리 예약을 하자.

국립김해박물관 gimhae.museum.go.kr

문의 : 055-320-6800



PM 15:00

가야로 떠나는 시간여행

김해가야테마파크는 고증대로 재현한 가야의 모습이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하다. 드라마 <김수로>의 촬영 세트장을 그대로 살려 철기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철광산 공연장 전망대에서 한눈에 내려다보는 야경이 일품이라 밤에 즐기기가 더욱 좋다.

김해가야테마파크 www.gaya-park.com

문의 : 055-340-7900~7901





번영을 누리던 철기가야의 모습을 그대로~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가야테마파크는 금관가야의 역사를 한눈에 쉽게 보고 즐기는 테마 공원이다. 찬란했던 철기문명의 재현으로 마치 가야시대에 온 듯하다. 공예, 도자, 직업체험, 뮤지컬, 연주회와 같은 공연까지 다양한 즐길 거리가 가득해서 가족, 연인 누구와 함께해도 즐거운 여행이 보장된다. 입구부터 산타할아버지와 조경물들이 다양하게 꾸며져 사진 찍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새해 소원을 기원하려면 스토리텔링 전시관인 가야왕궁으로 가자. 왕궁 안에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황금거북이가 있다. 그리고 수로왕과 허왕후의 러브스토리와 흥미진진한 가야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 밤에는 가야의 유민공주 이야기가 가야왕궁의 태극전을 스크린 삼아 조명 영상쇼로 펼쳐져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가야시대 옷을 대여해 주는 곳이 있어 수로왕과 허왕후 코스프레를 하며 사진으로 남긴다면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계절별로 놀이시설을 준비하기도 하는데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개장하여 아이들과 한때를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철교 위의 짜릿함, '김해낙동강레일파크'

낙동강 위 철교의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김해낙동강레일파크이다. 철교를 지날 때 양 옆으로 낙동강 풍경과
함께 귀한 손님인 큰고니와 청둥오리 등 철새들도 관찰할 수 있어
기분이 새롭다. 망원경이 있다면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먼저 친절함 직원의 설명으로 레일바이크 조작법을 간단히 배운다.
출발할 때는 약간의 내리막이라 신이 나고, 돌아올 때는 반대로 약간의
오르막이다.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속도를 내면 내릴 때 다리가 풀려
여자 친구나 가족들 앞에서 원치 않는 슬랩스틱개그를 보여주게 된다.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풍경을 즐기자.

땀도 식힐 겸 차를 즐기며 잠시 쉬어 가자. 매표소 쪽에는 실제
운행했던 새마을호 2량을 개조해 만든 열차카페가 있다. 실제 기차
내부처럼 느껴지도록 꾸민 인테리어가 이색적이다.

열차카페 반대편 출구로 나가면 오크통 모양의 와인동굴 입구가 있다.
지난 2010년까지 기차가 오가던 생림터널을 리모델링했다. 트릭아트,
빛의 터널, 산딸기소년 베리의 포토존 등 다양하게 꾸며져 한 구간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김해의 특산물인 산딸기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작은 와인바가 있다.







살아있는 박물관, 김해의 유적지

김해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국립김해박물관을 비롯하여 대성동고분박물관과 봉황동 유적, 그리고 수로왕릉 까지, 철기와 해상왕국의 모습이 오늘날까지 간직한 거대한 박물관이다.

국립김해박물관은 다양한 체험과 공연, 교육프로그램으로 즐길거리가 풍부하고, 서로 보완적인 대성동고분박물관은 외관도 미적으로 훌륭해 김해의 주요 관광지가 되었다.

김해의 상징적 문화유산인 수로왕릉(사적 제73호)은 거북이 머리 부분에 해당되어 풍수적으로 명당이라 한다. 가까이 수로왕비릉(사적 제74호)이 있다. 김수로왕은 가야의 번성을 이끌며 무려 158년 동안 천수를 누렸다고 하니 하늘이 내린 인물이 아닐 수 없다. 입구의 안내소에서 해설사를 요청하면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재미있게 들려준다. 왕릉 밖의 2층 카페에서는 차를 마시며 왕릉 쪽 조망을 즐길 수 있다.

카페에서 잠시 쉬었다면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김해한옥체험관에 들르기를 추천한다. 오후 4시까지 대문이 활짝 열려 있어 천천히 한옥을 둘러볼 수 있다. 숙박을 원한다면 예약을 반드시 해야 한다. 왕릉 바로 옆의 전통 한옥에서 하룻밤은 특별하다. 또한 10인 이상이라면 다도시연, 예절교육, 민속공예, 풍물놀이, 떡메치기 등 다양한 전통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니 몇 가족이 함께 여행한다면 꼭 신청해볼 만하다. 



운수대통 풍수 인테리어

활기찬 새해, 집 안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풍수인테리어에 눈을 돌려보자.
분위기를 조금 바꾸거나 소품을 활용하는 등
재치 있는 인테리어로 명당 부럽지 않은
집으로 만들 수 있다.

식물과 함께 운도 자란다

- 거실에 향기 나는 꽃이나 난을 두면 애정운이 상승한다. 집 안이 온화한 기운으로 채워지면 식구들에게 좋은 기운을 미친다. 단, 사람 키보다 큰 나무는 피하는 것이 좋다.
- 주방 창가에 작은 화분을 두면 재물운을 높일 수 있다.
- 화장실에 붉은 꽃이나 작은 관엽식물을 두면 기의 흐름을 좋게 만든다.

문을 꼭꼭 닫아야 할 곳이 있다

- 옛날에는 집 밖에 있던 화장실이 오늘날에는 욕실 겸용으로 해서 집 안으로 들어와 있다. 화장실은 원래 기를 불러들이는 곳이 아니라 기를 배출하는 곳이다. 환기는 낮에 하고 취침시간 전에는 화장실 문을 반드시 닫도록 한다.
- 금전과 건강운을 상징하는 변기 뚜껑은 닫아 놓아야 운이 세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둥글게 둥글게~ 재물운을 상승시키자

- 둥근 형태의 가구는 돈을 부른다. 식탁, 시계, 소파, 조명 등은 둥근 가구나 소품으로 꾸며보자.
- 모서리가 지나치게 뾰족한 물건이나 돌출된 물건은 돈이 들어오는 길을 막으니,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주방 도구는 반드시 서랍 안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노란색은 황금을 뜻한다

- 노란색은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행운의 색이다. 노란색 물건의 아이템을 잘 활용하자. 노란색 화병에 식물을 꽂아두거나 잘 익은 노란 호박을 현관에 두면 재물운이 상승한다.
- 서쪽은 재물운을 높이는 방위이므로 금고 같은 중요한 물건을 두도록 한다.

집안 곳곳에 조명을 밝혀라

- 풍수인테리어는 무조건 '밝게'가 포인트다.
- 거실은 집 안의 중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채광이 좋고, 밝은 것이 좋다. 대신 너무 넓은 통유리로 된 창문은 피하는 것이 좋다.

어향으로 재물운이 넘실넘실

- 명당은 '배산임수'가 잘되는 곳이라 했다. 집 앞에 물이 흐르고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곳을 말한다. 하지만 아파트에 살면 배산임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럴 때 어향을 들어놓자. 재물운이 집 안에 물처럼 흘러 들어오도록 한다. 방위는 동남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집 안의 습도 조절까지 되니 일석이조다. 🌊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달라지는데, 꼼꼼히 챙기기란 쉽지 않죠?
법무팀에서 성우가족에게 도움이 될만한 제도들을 모았습니다.



기획재정부 _ 조세부분 [2017년 1월 시행]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

산출세액의 10% → 7% 세액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시 채무액 차감

채무액은 상속가액에서 별도 차감하는 점 감안 계산방법 합리화

공제금액 = 상속주택가액 * 80%

→ (상속주택가액 - 해당자산에 담보된 채무) * 80%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시적 실시

(2016년 12월 5일 ~ 2017년 6월 13일)

❖ 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 된 경유자동차를
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차를
폐지하고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 감면

❖ 시행일 : 2016년 12월 5일 이후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제도 적용기한

2년 연장(2016년 12월31일 → 2018년 12월 31일)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습합차 보유자는 연간 10만 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250원, LPG부탄은 161원/리터 환급



법무부 [2017년 3월 시행(잠정 시스템 구축 중)]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위한 사전 필수 등록 절차를
만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2017년 1월, 2월은 인천공항 시범 운영 후,
2017년 3월부터 전국 공항·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국토교통부 [2017년 1월 시행]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대상 확대

❖ 추진배경: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확대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 매매 + 분양권 전매계약

→ (개선) 부동산 매매 + 분양권 전매계약 + 분양계약
으로 확대

❖ 검인대상 최초 분양계약, 분양권 매매(주택제외),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등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등





여성가족부 [2017년 1월 시행]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

- ❖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 ❖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 연령: 3개월~24개월(만 1세)
→ **36개월(만 2세) 확대**(※자격요건 有)
- ❖ 아이돌봄서비스 국민행복카드 도입(아이돌봄서비스 결제 편의 증진)
본인부담금 계좌이체
→ **카드사 청구**

국방부 [2017년 3월 시행]

5~6년차 예비군, 더 이상 동원지정 하지 않음

- ❖ 5~6년차(병) 예비군 동원미지정으로 소집점검훈련(4H)
→ **향방예비군훈련(6H) 변경하여 실시**
- ❖ 5~6년차(병) 동원지정자 훈련
향방기본(8H), 향방작계(6H), **소집점검(4H)**
→ **향방기본(8H), 1차향방작계(6H), 2차향방작계(6H)**

특허청 [2017년 3월 시행]

특허심사청구기간 단축

- ❖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심사청구기간'을 단축하여 기업 등의 특허 감시부담 경감
- ❖ 2017년 3월 1일부터 출원일부터 심사청구기간 **(5년 → 3년) 조정**
- ❖ 필요 시 심사유예제도 활용하면 출원일로부터 5년까지 심사유예는 가능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한정
- ❖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가능
 - ②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번호변경 적합 여부 결정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면허증 발급서비스 개선

- ❖ 민원인이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등 생활과 밀접한 자격·면허증을 받기 위해 원거리 관할 관청을 방문 또는 우편 신청·수령 불편
→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한 신청·수령 및 재발급 가능**
- ❖ 1단계: 팩스 처리(16년 12월 22일~)
2단계: 전자처리, 온라인 발급 (17년 5월~)
시행: 2017년 5월~



소개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 외에 최신법령은 시행 월 이전에 법률소식지를 통해 신속·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콤달콤 우리 아이의 그림일기 엿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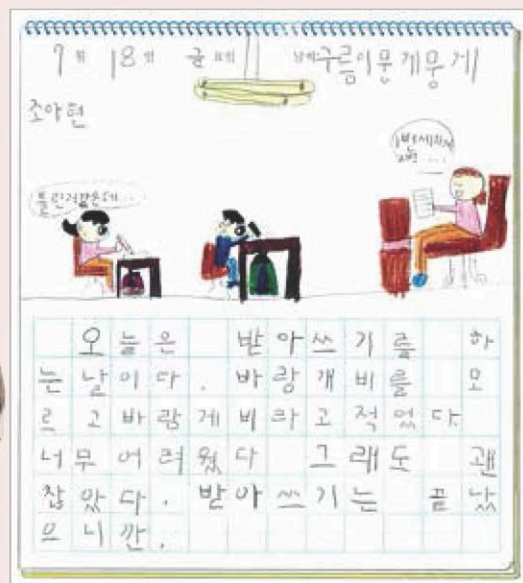
12월 6일부터 1월 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었던 '우리 아이 그림일기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가족의 행복한 일상, 신년소망, 나의 장래희망 등 다양한 주제로 그려진 그림일기 속에서 아이들의 천진난만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우리 성우가족의 추억이 스며있는 그림일기 당선작을 만나봅시다. 과연 우리 아이는 어떤 행복한 기억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을까요?

당선

IT지원팀 조인철 차장 자녀 조아현 양 그림일기

조아현 양의 그림일기는 아이다운 천진난만함이 돋보였던 작품입니다. “다음에는 안 틀려야겠다”는 틀에 박힌 다짐 대신, “그래도 괜찮았다. 밤아쓰기는 끝났으니깐”으로 마무리하는 반전에서 웃음이 났! 현재 11살인 아현 양이 3년 전에 썼던 작품을 고이 간직한 부모님의 정성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 그림일기 공모전 당선
가족 사진 촬영권
축하합니다!



역사의 역사 속으로

어느덧

창립 40주년을 맞은

성우하이텍.

성우하이텍이 태동했던

1977년부터 40주년을 맞은

현재까지 어떤 희로애락이 모여

역사가 되었을까?

성우하이텍의 40년 역사와

함께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만나보자.

이번 호에서는 1977년부터

1986년까지의 역사를 담았다.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

“그해엔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문득 궁금증이 일 때,

자녀가 물어볼 때

함께 꺼내어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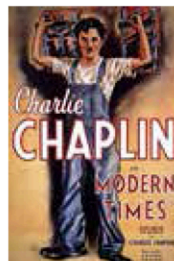
1977

사건

- 성우금속공업사(성우하이텍 전신)
창립(8월 15일)
- 고상돈, 한국인 최초 에베레스트산
(8,848m) 등정으로 세계에서 여덟 번째
에베레스트 등정 국가가 됨.
◎ 고상돈은 1979년, 알래스카산맥의
데날리산(6,194m) 등정 후 하산 도중
추락사. 그의 고향 제주도에서는 매년
'한라산 고상돈로 걷기대회'가 열린다.
- 이리역 폭발 사고(사망 59명, 부상
1,343명, 9,973명 이재민 발생)
◎ 당시 무명이었던 희극인 **故 이주일이**
가수 하춘화를 구출하여 유명해짐.
-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 송전
시작
- 광주시에서 박흥숙 살인사건 발생
(영화 [무등산 타잔, 박흥숙의 배경])

해외

- 미국, 우주선 보이저 1, 2호 발사
- 영국, 오후 5시 12분 ITN 방송 중 6분간
외계인 목소리 송출
- 프랑스, 마지막 단두대형 집행
(1981년,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 미국,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망
◎ 엘비스 프레슬리가 여전히 생존해 있다는
음모론도 있음.
◎ 가수 남진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벤치마킹했다는 설
- 영국, 찰리 채플린 사망
◎ 매카시즘 여파로 생전에 '공산주의자'
라는 의혹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에서야 그의 영화가 개봉([모던
타임즈], 서울 관객 26만 명으로 흥행)



문화

-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
- 영화 [스타워즈] 1편 미국 개봉
(한국은 1978년 개봉)
◎ "I'm your father!"라는 유명한 대사는
몇 편에 등장했을까?
- KBS TV <전설의 고향> 방송 개시
"내 다리 내놔~(콩콩)"

1978

사건

- 영화감독 신상옥, 배우 최은희 부부, 홍콩에서
납북(1986년, 탈북 귀환)
- 대한항공 902편이 소련 영공에서 격추
(2명 사망, 107명 구조)
- 부산시에서 정효주 유괴 사건 발생
(영화 [극비수사]의 배경)

해외

- 이란, 대지진 발생(1만 5천여 명 사망)
- 이집트&이스라엘, 캠프데이비드 협정 서명
◎ 미국의 캠프데이비드에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주선하여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를
초청하여 평화교섭 이듬해(1979년) 미국
백악관에서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 체결
- 가이아나 공화국, 신흥종교인 인민사원에서
집단 자살 및 살인 사건 발생(914명 사망)
◎ 대한민국에서는 1987년, 오대양 사건이
있었음.
- 일본, 아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 14명의
위패를 비밀리에 합사(잊지 맙시다)

문화

- 세종문화회관 준공 및 개관
- 고려대장경 초주본 59종 73권 발견



1979

사건

- 부마 민주 항쟁 발발(10월 16일)
- 박정희 대통령 서거(10월 26일)
- 최규하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취임(12월 6일)
- 신군부에 의한 12·12 군사반란(쿠데타)

해외

- 영국, 보수당 마거릿 대처 수상 취임
 - ◎ 영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1990년 11월 말까지 재임하여 20세기 영국 총리 중 최장기간 재임
- 중국-베트남 전쟁 발발

문화

- 국제올림픽위원회, 중국의 올림픽 복귀 결정
 - ◎ 1956년부터 중화민국(현재의 대만) 참여에 항의하여 불참
- 일본, <도라에몽>, <기동전사 건담> 방영 시작
 - ◎ 30여 년 후, 대한민국의 한 배우가 덕후로 유명세를 탈 줄이야...

해외

-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이 카터 독트린 선언
 - ◎ 카터 독트린 :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 국경지대 유전 장악 목적으로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여 이라크-이란 전쟁 시작
- 미국, 존 레넌(비틀즈 멤버) 암살
 - ◎ 암살범 마크 채프만은 존 레넌 암살 5시간 전, 작가인 스타린 킹에게 집요하게 사인을 요구해서 끈질김에 지친 킹이 사인을 해줬다고 함. 만약, 킹이 끝까지 사인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문화

- 컬러 방송 개시
- <전국노래자랑> 방송 시작
 - ◎ MC 송해 선생님은 빠른 1927년생으로 여전히 거뜬함.
 - ◎ 놀라운 사실은 국내 음악 프로그램 중 부동의 시청률 1위
- 63빌딩 착공(1985년 완공)
 - ◎ 63빌딩은 지상 60층, 지하 3층이기 때문에 63빌딩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오보이며, 61~63층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음.
 - ◎ 2003년 타워팰리스 3차가 건설되면서 국내 최고 높이 건물 자리를 넘겨줌.
-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대한해협을 수영으로 횡단
 - ◎ 2000년, SBS <대한해협횡단-20년 전의 약속>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조오련과 최종원, 소지섭, 정우진, 이희진 등이 릴레이로 대한해협 횡단하는 프로젝트 방영
- 황병일, 대학야구 춘계연맹전에서 한국야구사 최초의 사이클링 히트(Hitting for the cycle: 한 선수가 한 게임에서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쳐낸 것) 기록

1980

사건

- '서울의 봄' (1979년 10월 26일~1980년 5월 27일)
- 신군부 세력,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 5·18 광주민주화운동 발생(5월 18일)
- 삼청교육대 설치 (1980년 8월 1일~1981년 1월 25일)
- 전두환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 취임(9월 1일)
- 대한민국 제8차 개정헌법(제5공화국 헌법) 공포
- 정부, 언론통폐합 조치

1981

사건

- 성우금속공업사, 성우금속으로 법인명 변경
- 전두환 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 취임(3월 3일)
-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탄생 (1995년에 '광역시'로 변경)
- 88올림픽고속도로(대구~광주, 175km) 착공(1984년 완공)
 - ◎ 당시에는 왕복 2차 규모, 2015년 전 구간 왕복 4~6차로 확장 완료하며 '광주대구고속도로'로 명칭 변경

해외

- 미국, 최초 우주 왕복선 컬럼비아 발사
-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안살미수, 태쿰세의 저주 비켜 감)
 - ◎ 태쿰세의 저주: 20년 주기로 당선되는 미국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재임 중에 여러 이유로 죽는 것에서 비롯된 징크스이다. 미국 성립 초기 아메리카 원주민 추장 태쿰세가 죽으면서 내린 저주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 자메이카, 밥 말리 암으로 사망

문화

- 대한민국 <국풍81 행사> 개최
- <가요톱10>, <뽕뽕뽕> 방송 시작
 - ◎ <가요톱10>: <뮤직뱅크>의 전신. 조용필의 '못 찾겠다 꾀꼬리'가 10주 연속 1위를 차지한 후폭풍으로 '골든컵(5주 연속 1위시 명예졸업)' 제도 신설
 - ◎ <뽕뽕뽕>: '아빠가 출근할 때~'로 시작되는 로고송과 왕영은, 조여정, 나경은 등 수많은 뽐미 언니를 낳긴 대한민국의 대표 이린이 프로그램
- 최초의 IBM PC 출시
- 신안 앞바다에서 유물 2천500여 점 인양



1982

사건

- 야간통행금지(1945년 9월 8일~1982년 1월 4일, 해제(1월 5일))
- 경상남도 의령에서 우범곤 순경 사건 발생
◎ 62명 연속 살해 후 폭사
◎ 2011년까지 최단기간 최다살상 기록
-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발생
- 이철희 장영자 여음 사기 사건 수사 결과 발표

해외

- 포클랜드 전쟁 발발(아르헨티나 vs. 영국)
- 그레이스 켈리(영화배우, 모나코 왕국 대공비) 교통사고로 사망
- 마이클 잭슨, 역대 최고 세계 최대 판매량 달성한 앨범 <Thriller> 발매
◎ 앨범 <Thriller> : 'Thriller', 'Beat It', 'Billie Jean' 등의 히트곡이 수록되어 있는 앨범으로 전 세계 최소 5,60만 장이 팔림. 뮤직비디오에서 마이클 잭슨이 직접 늑대인간과 좀비 분장을 하고 출연하여 센세이션을 일으킴.

문화

- 한국프로야구(KBO) 리그 출범
◎ 개막 첫 경기부터 이종도의 끝내기 만루 홈런으로 야구 열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함.
- 대한민국, 제27회 세계 야구 대회 우승
◎ 김재박의 개구리번트, 한대화 결승 3점 홈런! 설명 끝!
- 500원 주화 최초 발행
- 스코트 펠만이 처음으로 “:-)”과 “:-(”이라는 이모티콘 제안
- 김득구, WBA 라이트급 챔피언전 권투 경기 도중 사망
◎ 이후 세계 권투계는 15라운드에서 12라운드로 줄이고, 라운드 사이 휴식시간을 60초에서 90초로 늘렸으며, 스탠딩 다운제 도입

1983

사건

- **성우금속, 현대자동차 스텔라의 몰딩 개발 및 납품**
-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공식 방문하여 정상회담 성사
- 이산가족 찾기 방송 시작 (6월 30일~11월 14일)
◎ 이때 패티김이 부른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설운도가 부른 '잃어버린 30년'이 나온.
-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 상공에서 격추 (269명 전원 사망)
- 아웅산묘역 폭탄테러 사건 (서석준 부총리 등 17명 순직, 15명 부상)

해외

- 필리핀, 야당 지도자 베니그노 아키노 피살
- 미국의 소녀 서맨사 스미스가 유리 안드로포프 서기장 초청으로 소련 방문
◎ 미국의 10살 소녀가 소련의 서기장에게 '핵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롭게 지내자'는 편지를 썼고, 이에 유리 안드로포프 서기장이 답장과 함께 서맨사 스미스를 소련으로 초청하여 방문이 이루어졌다는 훈훈한 이야기
- 소련 장교 스타니스라프 페트로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막고, UN 으로부터 '세계 시민상'을 받음.
◎ 도저히 급박했던 상황을 짧게 쓸 수 없지만, 그래도 요약하자면, 소련의 인공위성이 '햇빛'을 미국의 ICBM (탄도유도탄)으로 잘못 인식하여, 소련 당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던 순간! 페트로프가 컴퓨터 오류임을 알아채고 핵전쟁 취소코드를 입력! 두둥!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사람에게 목숨을 빚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문화

- 동전, 지폐 디자인 변경
- ◎ 변경된 디자인 중 5천 원권은 2006년 1월 2일, 1천 원권과 1만 원권은 2007년 1월 22일부터 생산 중단
- 제1회 천하장사 씨름 대회 개최
◎ 이만기 총 10회, 강호동 총 5회 천하장사 타이틀 획득
- 현대자동차, 스텔라 출시



1984

사건

- 전두환 대통령,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 최초 일본 방문
- 함께 출산을 2.0명 아래로 떨어진 첫째 (이때부터 현재까지도 2.0을 넘긴 해 없음)
- 서울대공원 개원
 - ◎ 명칭과는 달리 위치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과천시라는 사실
 - ◎ 포털사이트에서 '이름과 실체가 다른 것/지명'을 찾아보면 더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 태풍 "준"으로 큰 피해(사망 189명, 실종 150명, 재산피해 2,502억 원), 북한이 구호물자를 보냄.

해외

- 미국, 광우병 의심 소 최초 발견
 - ◎ 광우병 발생원은 소에게 양고기로 만든 사료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 소가 풀을 뜯어 먹어야지... 인간이 소에게 밥을 짓을 했어요.
- 미국, 애플사 매킨토시 출시

문화

- 영화 [터미네이터] 개봉(국내 12월 22일)
 - ◎ "I'll be back!"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2015년까지 총 5편이 나왔다는데... 알고 계셨나요?
- <가족오락관> <연예가중계> 첫 방송
 - ◎ "최종점수 몇 대 몇!", "짜랑해요 ~여네가 준개!"(해피스타)라는 유행어는 전설이 된 상징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으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방문(1989년에 2차 방문)
- 유리 겔라, 대한민국 방문
 - ◎ 당시 초능력자로 알려졌다. 이후 미술사 혹은 사기꾼으로 판명

1985

사건

- 서울과 평양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개최
- 대한민국 최초 시험관 아기 출산 성공
- 부산 도시철도 1호선 1단계(범어사~범내골) 개통

해외

- 일본, JAL 123편 군마 현 추락하여 524명 중 520명 사망. 단일 항공 사고로는 사상 최악의 사건
- 닌텐도, <슈퍼 마리오브라더스> 발매
 - ◎ 공주를 구하고 난 후에 오는 허무함이란...
- 스티브 잡스, 자신이 세운 애플에서 축출 (1996년에 복귀)

문화

- 일제강점기 때 폐지되었던 음력 설날이 '민속의 날'로 부활
 - ◎ 이때는 휴일 1일, 1989년에 '설날'이라는 명칭과 함께 3일 휴일로 지정
- 현대자동차, 포니 엑셀, 쏘나타 출시
- <수사반장> 부활
 - ◎ 1차: 1971년 3월 6일~1984년 10월 18일 / 2차: 1985년 5월 2일~1989년 10월 12일



1986

사건

-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발생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첫 번째 사건 발생
 - ◎ 1986년 9월 15일~1991년 4월 3일, 영화 [살인의 추억], 드라마 <시그널>의 배경
- 광주직할시 탄생 (1995년에 '광역시'로 변경)

해외

- 미국, 보이저 2호가 최초로 천왕성의 사진 촬영하여 지구로 전송
- 미국, 챌린저 우주왕복선 폭발사고 발생
- 소련, 우주정거장 미르 코어 모듈 발사
 - ◎ 2001년, 노령화로 피지 앞바다 근처에 추락, 남태평양 바닷속으로 폐기
-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 발생
 - ◎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알린 대표적인 사건 / 소련의 해체 원인을 체르노빌 폭발로 보는 사람도 있음.
- 네덜란드&영국, 335년 전쟁 종전 선언
 - ◎ 세계 최장기 전쟁, 사상자 0명, 웃긴 전쟁이죠?
- 영국&프랑스, 도버 해협을 지나는 해저 터널인 채널 터널 착공(1994년 개통)

문화

- 서울 아시안게임 개최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32년 만에 FIFA 월드컵 진출
 - ◎ 3경기 도합 무려 4골이나 넣었으나, 1무 2패로 16강 진출 실패
 - ◎ 이 대회는 마라도나의신의 손사건이 유명: 마라도나가 골키퍼와 헤딩 경합 도중 손으로 공을 건드리는 반칙으로 득점
- 교복자율화 폐지
 - ◎ 교복 선택을 학교장 재량으로 하여 이전과 달리 다양한 교복이 생겨남.

오늘은 성우덕 김장 하는 날

지난 11월 25일, 양산 덕계동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 빨간 고무장갑을 낀 ‘사단법인 희망웅상’과 ‘웅상나눔회’ 회원들 틈에 노란 조끼를 입은 성우하이텍 직원들이 눈에 띈다.

산더미같이 쌓인 절인 배추와 반듯하게 자른 무, 고운 붉은색 김치 양념이 70여 명의 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전 준비로 고생해주신 분들이 고맙고, 그나마 어제보다 덜 추운 날씨도 새삼 고맙다. 처음 대면하는 사람들 틈에서 어색함도 잠시, 묵묵히 배추에 김치소 채우기에만 여념이 없더니 이내 시끌벅적해진다.

넒따란 테이블 위에 쭉 둘러선 직원들. 하얀 배추에 김치소를 쓱쓱 채워 넣고, 생전 처음 보는 큰 주걱으로 양념장을 휘휘 저어서 나르고, 큰 대야 가득 깍두기를 버무리느라 여념이 없다. 함께한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들도 난생처음 접하는 김장체험에 웃음꽃을 피운다.

김장하는 날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양념장에 버무린 김치와 고소한 수육을 맛보는 것. 뜨끈한 어묵 국물까지 곁들여 함께하는 점심이 더없이 맛나고 푸지다.

따스한 햇볕 아래 붉은 옷을 입은 600포기의 배추김치, 깍두기가 방긋 웃는 듯하다. 뿌듯한 성과물과 함께 추억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긴다. 김장의 마지막 코스는 찾아가는 배달 서비스! 김치를 받은 이웃들의 표정은? 내년엔 참여할 우리 직원들의 상상에 맡긴다.

참! 우리가 참가한 이 행사는
‘겨울^愛(애) 희망^饌(찬) 김치 나눔’이다. 

민준아,
여기 양념 떨어졌다.
양념 퍼뜩 갖고 온나!



아이고, 주축야!
김치 예쁘게 양념 잘했네~





네, 알겠습니다.
양념 지나갑니다,
옷에 안 묻게
조금만 비켜주세요~



혜정 씨, 나도 국물
한 그릇 줄래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수험아, 여기 김치 다
된 거 상자에 담아봐.



'좋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다. 하루아침에 습관을 바꾸거나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간다면 자신이 원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다.

도전! 2017 좋은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

성공과 행복을 위해 1년 동안 지켜보면 좋을 습관을 체크해보자.

- ☐ 잠을 깨우는 알람, 끄지 않고 한 번에 일어나기
- ☐ 아침, 점심, 저녁 짬짬이 스트레칭하기
- ☐ 과식하지 않기
- ☐ 영양제 챙겨먹기
- ☐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하기
- ☐ 책상이나 주변 정리하기
- ☐ 해야 할 일은 당장 하기
- ☐ 항상 웃는 얼굴로 생활하기
- ☐ 한 달에 한 번 자신이 한 일 돌아보기
- ☐ 시도 때도 없이 메모하기
- ☐ 먼저 인사하기
- ☐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기
- ☐ 단기 목표를 정하고 매주, 매월마다 확인하기
- ☐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
- ☐ 눈 마주 보고 대화하기
- ☐ 고운 말 사용하기
- ☐ 감정 표현에 솔직해지기
- ☐ 바른 자세로 앉기
- ☐ 잠자기 전 스마트폰 하지 않기
- ☐ 책 읽고 독서 노트 작성하기

1년 단위로 세운 목표가 막연하다면 한 달, 1주, 하루 단위로 To Do List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매일 목표를 달성하며 얻은 성취감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당장 오늘 하루의 To Do List를 작성해보자.

☐	☐
☐	☐
☐	☐

성우 느린 우체통 OPEN!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고싶은 친구에게, 소중한 연인에게 손편지를 적어주세요.

편지는 1년 후에 배달됩니다. 편지를 써서 담당자에게 주시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1년 후 발송해드립니다.

이하영 12년 ~음은

보내는 사람

--	--	--	--	--

받는사람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공단3길 50
성우하이텍 인사노무팀

문해준 사원

☎ 070-7477-6233

5	0	5	1	1
---	---	---	---	---

尾

尾

尾

40 YEARS HISTORY OF
SUNGWOO HITECH

성우하이텍의 40년 역사를 찾습니다

2017년 8월 15일이면 성우하이텍이 창립 40주년을 맞습니다.

성우하이텍은 지난 40년 동안 성우하이텍과 함께해온 여러분의 추억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우하이텍과 함께했던 지난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사료와 수기를 보내주세요.

공모기간

2017년 6월 30일까지

사료 부문

사진, 발간물, 기념품, 광고물, 서류 등 형태불문
역사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료

수기 부문

성우하이텍과 얹힌 에피소드, 추억담, 일화 등
※ A4 용지 1장 내외

공모 대상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우편 :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공단 3길 50

E-mail : happymhj@swwhitech.com

T. 070-7477-6233

어둠을 깨우고 빛을 부르는
붉은 닭의 힘찬 울음소리에,
40년을 지나 새 역사를 써 나아갈
새 날이 열립니다.
새 다짐이 열립니다.



Seochang Factory : 50, Sojugongdan 3-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R&D Center : 18-2, Sojugongdan 6-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Stamping Mould Factory : 30, Sojugongdan 7-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Jeonggwan Factory : 2-9, Nonggong-gil, Jeonggwan-eup, Gijang-gun, Busan, Korea
Coil Center : 151, Jangansandan-ro, Jangan-eup, Gijang-gun, Busan, Korea
Jisa Factory : 31, Gwahaksandan 1-ro, 60beon-gil, Gangseo-gu, Busan, Korea